

환경 지식의 메카로 성장하다

Envietech 2010

2010년 2월 4일과 5일, 이를 동안 오스트리아 수도 빈의 컨벤션 센터 ACV(Austria Center Vienna)에서는 주목할 만한 행사가 개최되었다. 환경 분야 학회 및 전시회를 결합한 Envietech 2010이 그것으로, 지난 2008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Envietech은 오스트리아 생활환경부가 개최하며, 2008년에는 첫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500여 명의 학회 및 세미나 참석 인원, 25개 전시 참가업체, 16명의 언론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특히 Strabag AG, Sattler AG, Komptech GmbH 등 오스트리아의 대표적인 환경 관련 업체들 이외에도 그라츠市 등 지방자치단체들도 전시업체로 참가하여 환경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 주었다.

두 번째를 맞은 올해에도 Envietech에 쏠린 학계 및 관련 산업계의 관심이 여전히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금년 행사의 경우 1회 행사 때에 비해 15개나 늘어난 40개의 업체가 전시 참가업체로 참여함으로써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Envietech의 위상을 실감케 해 주었다.

올해에는 1회 행사 때에 이어 연속으로 참가한 Strabag AG, Komptech GmbH, 그라츠市 등을 포함하여 ACT(Austrian Clean Technology), BDI(BioDiesel International AG), ISPOR Photovoltaik-Anlagen, MUT(Maschinen-Umwelttechnik-Transportanlagen) GmbH, Porr AG, Saubermacher Dienstleistungs AG, Microtronics Engineering GmbH, GUT(sterreichische Gesellschaft für Umwelt und Technik) 등 환경 관련 분야의 대표적인 업체들 및 기관 이외에 슈타이어마케 소재의 환경 클러스터인 ECO WORLD STYRIA 등이 참여하였다.

국제기구, 미국, 중동에서도 높은 관심 보여

특히 올해 개최된 "Envietech 2010"이 눈길을 끈 것은 오스트리아 생활환경부 이외에도 OECD,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이 공동으로 후원했다는 점 때문이다.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2008년 5월 오스트리아 생활환경부와 MOU를 체결한 이후, 환경 기술, 기후 보호, 에너지 효율 증진 및 친환경 재생 에너지, 폐기물 및 폐수 처리 등 여러 환경 부문에서 정보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공동 활동을 수행해 오고 있으며 금년 행사에도 환경 분야의 저명한 교수 및 연구 인력으로 구성된 환경 사절단을 파견하였다.

2월 4일에 열렸던 개막식 행사에는 세계 각국의 저명 인사들이 모습을 나타냈는데, 요

르단 환경부 장관이 특별 연사로 참여하여 오스트리아 환경 산업 및 관련 분야 기업들의 우수성에 높은 평가를 내리면서 큰 관심을 표명하였다. 업계에서는 금년 행사를 계기로 우수한 오스트리아의 환경 기술 및 기업들이 보다 많이 중동 지역에 진출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였다.

금년 Envietech 2010는 환경과 관련된 기술 및 신재생 에너지 부문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이 분야의 오스트리아 기업들 및 연구소 등에 유용한 정보 및 가이드 라인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폐수 처리, 태양광 발전, 바이오 디젤 및 환경 친화적인 폐기물 처리 시스템 등이 주된 관심 분야로 다루어졌다.

에너지 절약형에서 자립형으로, '미래의 주택' 인기 폭발

학회에서는 총 35건의 환경 관련 세미나 및 주제 발표가 이루어졌는데, 환경 기술, 신재생 에너지, 폐기물 및 폐수 처리, 환경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한 파이낸싱 등의 네 가지 부문으로 나누어져 다양한 포럼 및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특히 신재생 에너지 부문에서 오스트리아의 대표적인 친환경 에너지 절감 프로젝트인 "Haus der Zukunft(미래의 주택)"에 대한 다양한 주제 발표가 이루어져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Haus der Zukunft는 오스트리아 교통기술혁신부(BMVIT) 주도로 지난 1999년부터 운영되어 오고 있는 정부 지원 프로젝트로, 친환경에너지 절약형 주택(Passive House)의 보급 및 관련 기술 개발 R&D 프로젝트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으로 2000년 말 기준 58채에 불과했던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주택의 숫자는 2010년에는 1만 5천 개로 예상되는 등 가히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최근에는 기존의 프로젝트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킨 "Haus der Zukunft Plus"가 시장의 큰 관심을 끌고 있는데, 기존 프로그램이 에너지 절약형 주택의 보급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데 반해 신규 프로그램은 에너지 자립형 주택(Plus Energy House)의 보급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는 태양 에너지 산업 특히 태양광 발전 분야의 R&D 프로젝트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들 에너지 자립형 주택들이 친환경 발전을 통해 얻은 에너지를 자체 수요를 충족하고 사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인근 지역에도 공급하도록 하는 작은 미니 발전소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는 것이 기본 취지이다. 학회 및 전시회를 결합함으로써 오스트리아를 대표하는 환경 관련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Envietech에 환경 관련 한국 기업 또는 연구 기관들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 및 참가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제3회 Envietech 2012는 2012년 2월 초에 개최될 예정이다. 

1. Envietech 2010 전시장 모습
2. 오스트리아 생활환경부 장관 Niki Berlakovich
3. 전기자동차를 시승하고 있는 오스트리아 생활환경부 장관과 요르단 환경부 장관
4. Austria Center Vienna 전경

